

미륵고개 · 관음산이 포화의 아픈 흔적 달린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 ④ 포천 호국 금강사

한국전쟁 종전 60년과 5군단 창설 60년을 맞은 6월 25일 포천의 한 사찰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5군단 군단 군법당 호국 금강사에서 열리는 호국영령 위령대제가 30주년을 맞았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남과 북이 함께 치유하고 화합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이날의 행사와 호국 금강사를 둘러보았다.

포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6·25 호국 영령 위령대제 30년

16개국 150만명 고흠 천도

영단에 북한·소련·중공군 위폐도

한국전쟁의 총성은 멎었지만 접경지역에는 6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짙은 아픔이 흐르고 있다. 전쟁의 포화가 빚발처럼 흔적이 남아있는 포천 지역은 한국전쟁 직전만 해도 남과 북이 자유로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전쟁 이전 북측에서 닦았다는 여우고깃길 등 그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아직까지도 생생히 분단의 아픔을 전한다.

이런 포천 지역에는 미륵고개 관음산 약사동 용화동 등 불교 명호(名號)와 연관된 곳들로 둘러싸여 있는 뜻깊은 공간이 있다. 바로 호국 금강사다.

왜 불교 명호가 호국 금강사 인근에 많을까. 바로 호국 금강사가 위치한 곳이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화도 수많은 선열이 잠든 곳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이 모아진 증거다.

계속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투기와 같다는 오투기 부대(8사단)가 지키는 포천 일대를 지나면 호국 금강사의 일주문이 외로이 오가는 사람들을 맞는다. 호국 금강사에는 별다른 전각이 없다. 많은 군장병들과 군수차량을 수용 가능한 앞뜰과 대웅전과 3층 석탑이 전부다. 하지만 금강역사와 같이 우뚝 솟아 있어 그 어느 사찰보다 사찰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강건하다.

불자 정동호 장군 발원으로 창건

1984년 창건된 호국 금강사는 당시 5군단장을 지낸 정동호 장군이 산과여할을

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내고 1984년 5군단장으로 부임한 정동호 장군은 독실한 불자였다.

정 장군은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실현하고 6·25전쟁 16개국을 포함한 전몰장병 150만 명의 고흠을 천도하자”는 취지로 부임 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호국위령재를 준비한다.

그 해 11월 28일 현재 호국 금강사가 위치한 자리에서 첫 번째 호국영령 위령대제가 열렸다.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됐던 1980년대 최전방 지역에서 열린 첫 호국영령 위령대제에 불교계의 관심은 컸다. 위령대제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녹원 스님이 참여했으며 1만여명에 달하는 불자들이 동참했다. 전 직지사 조실 관음 스님, 원로회의의 장 밀운 스님,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세버스만 400여대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행사였다.

1985년 6월 6일에는 밀운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 호국 금강사 3층 석탑에 봉안해 의미를 더했다.

호국 금강사에서 열린 위령대제가 다른 위령대제와 다른 점은 북한·소련·중공 등 우리 산하에서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영령들까지 극락왕생을 발원했다는 것이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 국경과 국적을 뛰어넘은 불교의 자비는 이런 행사를 가능케 했다.

호국 금강사 영단(靈壇)에는 지금도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전몰영가의 위패와 함께 북한군과 소련군, 중공군 등 적으로 참전했던 국가의 전몰영가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본래 호국금강사 법당은 1970년 12월 부대 영내에 지어졌다. 하지만 그야말로 구식 내부만을 개조한 것이어서 법당이라 부르



관음사 자락에 금강역사와 같이 우뚝서있는 호국 금강사. 군법당으로는 대형사찰에 속한다. 북한 자국 문제로 6월에 열려온 위령대제는 10년만에 6월 25일 열려 의미를 더했다.

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1985년 6월 25일에는 한국전쟁 35주년을 맞아, 위령대제가 열린 자리에 호국 금강사 신축법당이 준공됐다. 호국금강사의 발전에는 여러 불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호국 금강사 법당 내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불사 시주자 명단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스님들을 시작으로 한 진그룹 쌍용그룹 굴지의 기업 총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육군참모차장을 끝으로 전역했지만 정동호 장군은 호국 금강사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전역 후에도 위령대제 봉행위원장을 맡고 중장 불사 등에도 앞장섰다.

정 장군의 작고 후에는 ‘군포교 대부’로 불리는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이 봉행위원장을 맡아 호국 금강사에 몰심양면 도움을 주고 있다. 현성 스님은 1984년 경 6사단 호국 청원사 불사를 추진하며 정 장군과 인연이 닿아 호국 금강사 창건에도 기여했다.

호국 금강사의 선연은 대를 잇고 있다. 부처님오신날마다 장병들의 먹거리를 지원한 포천 마태사 보현 스님이 임적하자 상좌인 재화 스님이 현재도 호국 금강사를 돕고 있다.

군종특별교구와 포천사암연합회(회장 법해, 왕산사 주지), 가평사암연합회(회장 승원, 백련사 주지)도 틈틈이 힘을 보탠다. 법당 개보수 불사는 남해 보리암 주지 능

원 스님과 이천 영월암 주지 보문 스님이 기여했다. 역대 군승들의 기여도 컸다. 수많은 역대 군법사들이 진행한 중장불사로 현재 사격을 지니게됐다. 현재는 27대 주지 보문 김중봉 법사가 법당의 중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호국 금강사 위령대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함께 하는 종단 차원의 행사였

다. 호국 금강사를 찾는 불자들의 발길도 잦았다.

하지만 2000년부터 매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봉행되는 호국영령 천도법회가 자리를 잡으며 위령대의 규모가 축소됐으며 자연스럽게 여러 행사도 줄었다. DJ정부를 거치며 북한 측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위령대제는 6월 25일에 열리지 못하기도 했다.

주변보기

▲**찾아가는 길:** 외곽순환도로 퇴계원 나들목에서 일동 방면→47번 국도→베어스 타운 방면 진입→수입교차로에서 신철원, 운천 방면→삼팔교사거리에서 운천, 이동 방면 우회전→372번 지방도로→남양교에서 산정호수 방면 좌회전→노곡리



▲**볼거리:** 포천에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특히 산정호수 근처에는 역사박물관, 호수보트 등이 있다. 포천 허브아일랜드(031-535-6494, 성인 입장료 6000원), 포천아트밸리(031-538-348, 모노레일 체험 가능 4500원), 포천 한탄강 래프팅(031-540-3131,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 평강식물원은 관람객의 연령에 따라 ‘녹색수업’을 운영한다. (031-531-7751, 입장료 8000원).



다.(031-531-4459), 산정호수 주변에는 송어회도 맛볼 수 있다. 우리송어양식장 횡집(031-531-6606)

▲**먹거리:** 포천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이동갈비와 일동막걸리이지만 산채정식도 특별하다.

산정호수 인근에는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우식당(031-532-6148)이 있다. 산채정식 및 비빔밥 전문이다. 갈비는 김미자할머니 갈비집이 가장 유명하

▲**숙박:** 인근 산정호수에 편찬은 숙박시설이 많다. 한화리조트 산정호수는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했다(1588-2299), 다양한 펜션과 함께 최근 각광받는 캠핑 또한 체험할 수 있다. 포천 캠핑라운지(010-4761-1145), 포천 일동 메가오토캠핑장(070-7500-4510)



외로이 군장병을 반기는 금강사 일주문.



호국 금강사에 모셔진 참전국 영정위패.



봉행위원장 현성 스님(사진 왼쪽)이 금강사 주지 보문 김중봉 법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청담 ART 십이지상 천연황옥(印)

존경하는 스님! 불자님 보살님 사주대중님들!
‘나’를 대신하는 인감도장 낙관 법인감 등을 제대로 된것을 갖추고 계십니까?
혹, 막도장이나 싸구려 등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여기! **세계 하나뿐인 ‘명품’**이 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명품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인의 띠(十二支狀)을 형상화한 천연황옥(印)

주문 ⇒ 생년 월, 일, 시 성명감정 ⇒ 수작업 ⇒ 배송



양띠



말띠

本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스마트폰으로 QR Cord를 찍으시면 회사소개와 황옥에 관한 많은 정보 및 조각예술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ww.cheongdamartworld.com
상담문의 : 031-912-7114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